

류현진, 콜로라도전 7이닝 무실점 호투

타선 부진·야수 실책 겹쳐 최근 3경기 2패 후 승리 거머쥐어
타석에서 득점도 성공하며 시즌 5승 달성...평균자책점 2.18



류현진(31·LA 다저스)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힘차게 공을 뿌리고 있다.

류현진(31·LA 다저스)이 시즌 5승 달성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

타석이 터지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류현진은 시즌 5승째(3패)를 수확했다. 평균자책점은 2.18로 낮아졌다.

이날 류현진은 타선의 도움 속에서 경기 초반부터 전력 피칭을 했다. 98마일(153km)에 이르는 강속구와 함께 컷패스트볼, 체인지업을 주 무기로 던졌고, 커브와 슬라이더도 가미했다. 스트라이크 존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제구력도 호투를 뒷받침했다.

류현진은 1회 찰리 블랙몬과 D. J. 르메이휴를 받타로 잡아내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천적' 놀란 아레나도에게 내야안타를 맞았지만, 트레버 스트로리를 3루수 앞 땅볼로 잡아냈다. 포심패스트볼과 컷패스트볼 조합이 인상적이었다.

2점의 리드를 안고 2회 등판한 류현진은 까다로운 타자 매트 할러데이 3구 삼진으로 처리한 후 이안 데스몬드와 카를로스 곤살레스를 모두 3루수 앞 땅볼로 유도했다. 체인지업과 몸쪽 포심패스트볼 등으로 땅볼을 유도했다.

3회 2사 후 블랙몬에게 좌월 2루타를 맞았다. 평범한 뜬공성 타구를 다저스 좌익수 작 피더슨이 머리 위로 흘렸다. 그러나 평정심을 잃지

않은 류현진은 르메이휴를 2루수 앞 땅볼로 처리해 위기를 넘겼다.

류현진은 4회 선두타자 아레나도를 6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이어 팻 팔라이카와 할러데이를 모두 받타로 처리해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5회 하위타순을 상대로 삼자범퇴를 기록한 류현진은 6회 공 8개로 간단하게 이닝을 막아냈다. 특히, 아레나도를 상대로 적극적인 직구 승부로 받타를 유도했다.

류현진은 7회 1사 후 팔라이카에게 좌전안타를 맞았지만, 후속타자 데스몬드에게 투심패스트볼을 던져 2루수 앞 병살타로 이닝을 끝내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이날 류현진의 투구수는 93개(스트라이크 63개)였다.

류현진은 타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4회말 볼넷을 골라낸 후 작 피더슨의 부린 홈런 때 득점에도 성공했다. 이날 류현진은 2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190으로 낮아졌다.

다저스는 1회말 피더슨의 솔로 홈런 등으로 2점을 뽑았다. 3회 무사 2, 3루에서 터진 매니 마차도의 행운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다. 이어 맥스 먼치의 3점포 등이 터지면서 6-0으로 달아났다. 결국 8-2로 승리했다.

다저스(83승 68패)는 콜로라도(82승 68패)를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로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지동원, 세리머니 중 무릎인대 손상

몇 주 결장 불가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지동원이 골 세리머니 중 무릎 인대를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우크스부르크는 18일(한국시간) "지동원이 왼 무릎 안쪽 인대를 다쳤다. 몇 주 동안 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동원은 15일 독일 마인츠의 오펔 아레나에서 벌어진 마인츠 06와의 2018~2019시즌 분데스리가 3라운드에서 교체로 출장해 0-0으로 팽팽한 후반 37분에 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웃지 못했다. 시즌 첫 골에 과도하게 기뻐한 나머지 점

프 세리머니 도중 발목이 꺾이며 무릎을 다쳤다. 고통을 호소한 그는 결국 교체됐다.

지동원은 이 부상으로 다음달 12일과 16일에 열린 예정인 우루과이 파나마와의 A매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확한 복귀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3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재활과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테판 로이터 이우크스부르크 단장은 "매우 안타까운 부상이다.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동원은 "골을 넣은 기쁨인데 바로 부상을 입어 아쉽다. 복귀를 위해 열심히 재활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에비앙 챔피언십 공동 2위’

김세영 세계랭킹 13위 도약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로 대회를 마감한 김세영(25)의 세계랭킹이 13위로 올라섰다.

김세영은 18일(한국시간) 발표된 물렌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균 4.72점으로 지난주 19위에서 이번주 13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김세영은 최종 라운드 9번홀까지 에이미 울슨(미국)과 공동 선두를 달렸으나 10번과 12번 홀에서 더블 보기와 보기를 범하면서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박성현(25)은 5주째 1위 자리를 지켰고 에리아 쭈타누간(태국)도 2위를 유지했다.

박인비(30)는 3위로 순위가 한 계단 올랐고 유소연(28)은 4위로 하락했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안젤라 스탠포드(미국)의 세계랭킹은 지난주보다 46계단 상승한 30위로



비껴갔다. 최종 라운드 마지막 홀 더블 보기로 우승을 놓친 에이미 울슨(미국)의 세계랭킹도 지난 89위에서 48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올포유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이소영(21)은 70위에서 10계단 오른 60위에 자리했다.

뉴시스

최지만, 추신수 앞에서 시즌 10호 홈런포 작렬

탬파베이, 텍사스에 3-0 승리



최지만(27·텍사스 레인저스)이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홈런포를 터뜨렸다.

최지만은 1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솔로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친 최지만은 이날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타율도 0.287로 끌어 올렸다.

최지만은 1-0으로 앞선 6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텍사스 선발

아드리안 샘슨의 6구째 한가운데로 몰린 심커를 받아쳐 중월 솔로 홈런(시즌 10호)을 날렸다. 지난 13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 이후 5일 만에 다시 홈런 손맛을 봤다.

최근 12경기에서 5개의 홈런을 쏘아 올린 최지만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최지만은 1회 공격에서는 선제 적시타를 날렸다. 무사 1, 2루에서 샘슨을 상대로 우전안타를 쳐내 기선 제압에 앞장섰다. 그러나 나머지 타석에서는 안타를 쳐내지 못했다.

추신수는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부진했다. 최근 7경기에서 20타수 3안타에 그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69로 떨어졌다.

한편, 탬파베이는 최지만의 맹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승리했다.

최지만(27·텍사스 레인저스)은 1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6회초 시즌 10호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패야굴,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